

‘위해 논란’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석면 철거

광주시, 13억 들여 쌍촌·하남·금호 3개단지 대상

광주시가 그동안 위해 논란을 빚어 온 영구임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의 석면을 철거해 나간다.

광주시는 27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일환으로 13억1500만원을 들여 이 지역 3곳의 복지관 석면을 제거하고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낡은 시설을 손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 소유의 쌍촌사회복지관, 하남사회복지관, 금호사회복지관 등 3곳은 1992~1994년 사이에 지어져 건물이

낮고 석면 면적도 넓다.

지난 2014년 한국필터시험원 석면 조사 결과 이들 사회복지관의 건축 연면적 대비 석면 면적과 석면 비율이 50%를 넘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사회복지관별 건축 연면적 대비 석면면적과 석면비율은 금호복지관의 경우 2649㎡ 중 1464㎡로 석면비율은 55.27%였다.

쌍촌복지관도 1949㎡ 중 991㎡, 석면비율은 50.85%다. 하남복지관은 1987㎡ 중 910㎡ 석면비율은 45.57%로 조사됐다.

특히 석면 함유 자체 중 중간등급 이상의 위해성 함유비율은 금호복지관이 71.4%, 쌍촌복지관은 81.8%, 하남복지관은 72.2%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등은 “사회복지관 이용자 대부분이 사회적 소외계층이 많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석면을 철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들 시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 수만 3500가구에 달하지만 예산 마련 등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도심 속 ‘석면 건물’로 방치돼 있었다. 또 이들 복지관의 건립주체는 광주도시공사, 소유권은 광주시가 가

지고 있고 종교단체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등 관리 체계도 복잡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석면 함유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지도점검을 통해 이들 복지관을 관리했고, 올 상반기 수요조사와 공사 설계 등을 마치고 조만간 석면철거 공사 업체와 계약 및 공사를 시작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석면 철거 공사를 마무리하면 더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복지관 창호를 새로 다는 등 시설도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완도 고금도 관왕묘비 등 4건 문화재 지정 예고

완도 고금도 관왕묘비, 화순 광산이씨 승지공비, 순천 송광사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전남의례의식장 등 4건이 문화재 지정 예고됐다.

전남도는 관왕묘비 등 3건을 유형문화재로, 전남의례의식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 고금도 관왕묘비(關王廟碑)는 조선시대 1713년 세워진 비로, 명나라 장수 진린이 충무공 이순신의 전사를 애석하게 여겼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관왕묘의 연혁 금석문 자료로, 관왕묘의 역사성과 세운 연대, 지은이, 글씨 쓴 사람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화순 광산이씨 승지공비(承旨公碑)는 조선시대 1576년에 세운 승지 이달선의 묘갈명이다. 비문을 지은 사람(앞면 글 정 윤구, 뒷면 율곡 이이)과 글씨를 쓴

사람(아계 이산해)이 당대에 이름을 떨친 문장가·명필가인데다, 조선 초기 금석문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재자료(제162호)에서 유형문화재로 승격하기로 했다.

순천 송광사 감로암 목조아미타여래 좌상(木造阿彌陀如來坐像)과 복장유물(腹藏遺物)은 조선 후기 조성한 불상으로, 17세기 전반기 호남지역 불상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례 음식인 전남의례음식장(全南儀禮飲食)은 보유자 최윤자가 서부권역인 영광 반가(창녕조씨)의 훈례 음식을 4대째 계승, 장식성과 예술성이 뛰어나면서 고 기품이 있어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제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빛고을 귀농귀촌 2기 교육

광주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 52명을 대상으로 ‘2017년 빛고을 귀농귀촌 2기 교육’을 운영한다.

귀농귀촌 교육은 체계적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과 농업 정보를 제공해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8일 시작해 9월27일까지 14회에 걸쳐 60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농업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비닐사, 약용식물 등 작물별 기초 영농기술, 귀농인이 알아야 할 농업 정책, 생활법률 등의 농업이론과 가을배추 재배, 농기계 실습, 원예치료기법을 도입한 식물가꾸기, 도자기 체험 등 체험형 맞춤 실습교육으로 구성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26일 오전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동신문이 보도한 북한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치 모습. /연합뉴스

北, 동해상 미사일 발사체 3발 발사

美 “탄도미사일” 靑 “개량된 300mm 방사포”

靑, 북 ‘저강도 도발’에 국면전환 가능성 촉각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3발의 발사체 가운데 1발은 즉각 폭발하고 나머지 2발도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는 초기 분석을 일부 수정했다.

태평양사령부는 수정해 다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thre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이라고 규정하고, 1발은 즉각 폭발했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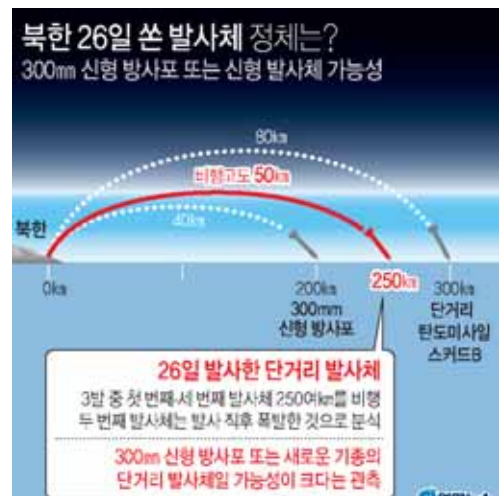
그러나 태평양사령부는 나머지 2발은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게 아니라 약 250km를 비행해 동해 상에 낙하했다고 정정했

다.

이는 한국군과의 합동 분석을 거쳐 초기 분석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국 시각으로 26일 오전 6시 49분경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김책 남단 연안 동해 상으로 수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250여km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정외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위원회를 진행했다.



다만 발사체 자체에 대한 한미 양국의 분석은 여전히 엇갈린다. 태평양사령부는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했다.

태평양사령부는 동맹국과 협조를 통해 더욱 자세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미 언론들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배경을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을지프리트답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과 견제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미 현지 언론들의 관측이다. 다만 북한이 중거리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강도 도발’로 한국과 미국 등에 혼란을 꾀하는 전략을 택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NYT)는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여전히 한국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데는 충분한 사거리를 지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연합뉴스

檢, ‘국정원 외곽팀’ 의혹 MB 지지단체 간부 등 조사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연관된 정황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간부와 군 예비역 장교 단체의 대표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연관성을 확인코자 최근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이하 대령연합회)의 양모(57) 회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차씨가 소속된 선진미래연대는 대표적 인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이 전 대

령 임기 초기인 2008년 10월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자유·변혁의 자유통일 추구하는 칼럼니스트’라고 소개한 차씨는 개인 블로그에 2008년 8월~2011년 8월 190여건의 글을 올렸다.

그는 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국정원 활동을 옹호하고 야당과 진보단체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뤘다.

1995년 설립된 대령연합회는 군 예비역 대령 전역자들의 모임으로, 국가 안보 및 사회 주요 이슈에 관해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단체다. /연합뉴스

박지원, 목포해양대 실습선 교체 예산확보 큰 기여

국민의당 박지원(목포·사천) 전 대표가 목포해양대학교 발전과 해양인력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문들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5일 광양에서 열린 목포해양대 순천·광양 동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동문 100여명과 최민선 전 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속에서도 해양인력 양성을 위해 목포해양대의 항해과와 기관과 등이 신입생 입학 정원 300명을 증원하고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

또한, 부산에만 있던 선원교육원을 목포해양대 인근으로 유치해 그동안 부산으로 3박4일 교육을 다녔던 충청·호남권 선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4일 간의 교육을 통한 목포시

경제 유발효과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 선원교육원은 내년에 개원한다.

낡고 오래된 목포해양대의 기존 실습선 교체를 위해 9000t급 실습선 건조를 위한 국비 예산확보에도 큰 힘을 보탰고, 올해에는 목포해양대 중소형 선박수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산자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힘을 쏟았다.

중소형 선박수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향후 5년에 걸쳐 235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민자 35억)이 투입된다. 박 전 대표는 목포해양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명예 동문으로도 활동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온에너지 |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www.housecomma.com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등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